

대학생의 상담수강경험과 전공에 따른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의 차이 연구

임애련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Study of Differences in Empathic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 Counseling Course-taking Experience and Major

Ae-Ryon Lim

Department of Arts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Welfare, Shinha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상담 관련 강의 수강 경험과 전공에 따라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대학의 대학생 313명이며, 가설 검증을 위해 통계적 분석 방법으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Duncan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의 공감능력은 성별, 전공, 상담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감성지능은 성별, 상담 관련 강의 수강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공감능력은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과학대학이 과학기술융합대학보다, 상담교육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감성지능은 여자가 남자보다, 상담교육을 받은 학생이 받지 않은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현재의 상담교육의 효과성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공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교육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교육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감능력이 현재의 커리큘럼으로 향상되지 못했다는 결과를 통해 실습 혹은 예술 매체 활용 등 상담 관련 교육 커리큘럼을 수정 혹은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mpathic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by college students' counseling course-taking experience and major. The research subjects were 313 college students, and an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and Duncan post-hoc test were conducted for hypothesis testing. A difference in empathic ability was observed according to the students' sex, major, and counseling course-taking experience. A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ir sex and counseling course-taking experience was noted. Empathic ability was higher in females than in males, higher in the school of social sciences than in the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higher in those who had counseling education than in those who did not. Emotional intelligence was higher in women than in men, and higher in students who had counseling education than in those who did not. Consequently, the effectiveness of counseling education was confirmed. On the other hand, a limitation of theoretical education was found in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the major. Although empathic ability can be improved by education, the current curriculum has not improved it. This study has significance that it emphasizes the need for supplementing the curriculum, like practice or utilizing art media.

Keywords : Empathic Ability, Emotional Intelligence, College Students, Counseling Course-Taking, Major

*Corresponding Author : Ae-Ryon Lim(Shinhan Univ.)

email: mfelim@daum.net

Received June 13, 2019

Accepted September 6, 2019

Revised July 8, 2019

Published September 30, 2019

1.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힐링’과 ‘치유’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적응하기 위해 생길 수밖에 없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들로 인해 현대인들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그동안 대학교에서 전공교육으로 실시되던 상담교육이 이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회현상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상담이란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상담자의 관계를 통해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 및 생각과 행동, 감정 등을 조절,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1]. 상담교육을 통해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받게 되므로 상담교육의 보편화는 좋은 현상이라 보겠다.

상담자가 가져야 할 전문적 특성에는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이 있다. 공감이란 ‘집단 구성원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된 정서적 경험과 그에 따라 적절하다고 예측되는 대응 양식’[2]으로 사회적 관념의 통찰부터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지하고 타인의 감정을 인지, 이해하며 다른 사람과 유사한 정서적 감정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3].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누어지며, 인지적 공감에는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관점 취하기와 자신을 허구의 인물에 대입하는 상상하기, 정서적 공감에는 불행한 타인에 대해 동정하고 염려하는 공감적 관심과 대인관계에서 스스로가 느끼는 긴장감과 불안 등인 개인적 고통이 포함된다[4]. 공감능력을 중시한 Rogers[5]는 사람중심상담 개념을 제시하며 상담자의 태도를 중시하였다. 이전의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지시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Rogers는 상담자의 권위를 내담자와 동등하게 끌어내려 현대적인 의미의 상담의 틀을 제시하였다. 상담자가 내담자와 공감하면, 내담자는 내면의 공포, 불안, 분노 등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내재된 답을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상담자의 공감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6]. 즉, 상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공감이며, 상담자의 공감 수준이 높으면 내담자와의 치료 관계에서 내담자의 자기탐구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상담의 효과가 높아지게 된다[7].

Sachsel[8]는 상담자의 공감반응의 질에 따라 내담자의 탐색반응의 정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공감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감능력이 성별, 인종, 전공, 교육경험, 자존감, 자아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9][10][11][12][13], 이를 통해 공

감능력이란 인간본성이기보다는 사회 환경과 교육에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담자가 가져야 할 또 다른 전문적 특성인 감성지능은 Thorndike[14]가 사회적 지능을 말하면서 대두되었는데, 사회적 지능의 구성요소인 대인관계 지능과 개인 내 지능은 따로 설명할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따로 발달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 이 두 요소를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으로 감성지능이 있다[15]. 감성지능이란 “타인을 이해하고 대인관계에서 행동을 지혜롭게 하는 지능”으로 보는데[16], 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수용하여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성을 조절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17].

상담자가 내담자와 원활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담자의 자기이해는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을 내담자 입장에서 다룰 수 있게 해주며, 상담자의 의식적·무의식적 행동으로 인해 내담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상담자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한다. 이를 Wong & Low[18]는 감성지능의 하위요인으로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 활용이라고 제시하였다.

Goleman[19]또한 감성지능을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자신의 감성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다[20]. 국내 연구에서도 배은주[16]는 감성지능을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자 나아가 감성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이처럼 상담자가 내담자의 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능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Mayer 등[21]은 감성지능을 감정발달, 지적 성장을 위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고, Salovey & Mayer[22]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감정 정보는 개인의 학습과 훈련 효과, 경험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느낌을 관찰, 식별하여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사용된다. 또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감정 유발, 사고 촉진을 통해 감정과 지식을 이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감성지능은 Emotional Intelligence로 표기하는데, Jung & Nah[23]의 선행연구 고찰에 따르면 Emotion, Feeling, Sensibility 등의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 정의의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Wong & Law[18]의 관점에 따라 Emotional Intelligence를 감성지능으로 사용하였다.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하면, 두 요인은 서로 비슷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공감능력 중 인지적 공감 영역은 감성지능의 일부 영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에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감성지능의 타인감성이해 영역이 필요하다. 이렇듯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은 서로 관련이 있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정서적인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감 과정에서는 감정이 나타나지만, 감성지능은 감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24].

그동안 수많은 전문 상담자를 키워내기 위해 다양한 상담교육이 실시되었다. 상담교육은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당연히 교육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상담교육을 통해 상담자의 전문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이 향상된다는 연구는 실시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공과 상담수강경험에 따라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의 관계를 살펴본다면 상담교육의 실효성과 다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하겠다.

연구문제

첫째, 대학생의 성별, 전공, 상담수강 경험에 따라 공감능력에 차이가 있을까?

둘째, 대학생의 성별, 전공, 상담수강 경험에 따라 감성지능에 차이가 있을까?

2. 본론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대학생 31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92명(29.4%), 여자가 221명(70.6%)으로 나타났고, 전공은 사회과학대학 205명(65.5%), 글로벌비즈니스대학 39명(12.5%), 바이오생태보건대학 41명(13.1%), 과학기술융합대학 22명(7.0%), 디자인 예술대학 6명(1.9%)으로 나타났고, 사회과학대학과 글로벌비즈니스대학을 인문계열로, 바이오생태보건대학과 과학기술융합대학을 이공계열로 분류하였으며, 모수가 부족한 디

자인 예술대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상담수강 경험여부는 수강 142명(45.4%), 비수강 171명(54.6%)으로 나타났다. 상담관련 교과목으로는 다문화 상담과 실제, 가족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상담, 상담 이론과 실제, 청소년 심리 및 상담 등이 있었으며, 1~2학년 학생에 비해 3~4학년 학생들의 상담관련 교육 수강 경험이 절대적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공감능력

공감능력척도는 박성희[25]가 번역한 Davis[4]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를 전체 28문항 구성하였다. 하위요인 4개이고, 하위요인에 따른 문항 수는 각각 7문항이다.

하위요인은 관점 취하기(perspective taking), 상상하기(fantasy), 공감적 관심(empathic concern), 개인적 고통(personal distress)이고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는 인지적 차원의 공감영역,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차원의 공감영역을 측정하였다.

Likert형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공감능력을 의미한다. 총28문항에서 타당도를 저해하는 2개 항목을 제외하고 총 26문항으로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 값은 .83으로 나타났다.

2.2.2 감성지능

Wong & Law[18]의 도구를 번안 수정한 전유정·이수범[26]의 측정문항을 사용하였다. 감성지능은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감성 활용으로 측정하였다.

원척도는 Likert형 7점 척도였으나, 공감능력과 일치시키기 위해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16문항 중에서 감성지능의 타당도를 저해하는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총 15문항으로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값은 .85로 나타났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대학생의 성별, 전공, 상담교육수강 여부에 따라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수행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의 성별, 전공, 상담교육수강 여부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

대학생의 성별, 전공, 상담교육수강 여부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는 다음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공감능력($t=-2.770$, $p<.01$)에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요인 중 개인적 고통($t=-3.413$, $p<.00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과 개인적 고통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서는 공감능력($F=3.985$, $p<.01$)에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요인 중 상상하기($F=3.206$, $p<.05$), 개인적 고통($F=3.445$, $p<.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

학기술융합대학이 다른 전공에 비해 공감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교육수강 여부에 따라서는 공감능력($t=2.395$, $p<.05$)에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요인 중 공감적 관심($t=2.846$,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교육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

3.2 대학생의 성별, 전공, 상담교육수강 여부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

대학생의 성별, 전공, 상담교육수강 여부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는 아래 Table 2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감성활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Table 1. Difference in abilities to empathiz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Empathic ability	Perspective taking	Fantasy	Empathic concern	Personal distress
Gender	Male	92	3.42±0.43	3.61±0.65	3.50±0.69	3.48±0.68	3.11±0.65
	Female	221	3.56±0.41	3.73±0.56	3.65±0.71	3.53±0.65	3.37±0.58
	t-value		-2.770**	-1.649	-1.710	-0.599	-3.413***
Major	college of Social Science	205	3.56±0.42 ^b	3.73±0.59	3.64±0.66 ^b	3.57±0.68	3.35±0.63 ^b
	college of Global Business	39	3.46±0.38 ^b	3.60±0.64	3.72±0.63 ^b	3.50±0.70	3.10±0.61 ^{ab}
	college of Bio natural Science	41	3.49±0.36 ^b	3.68±0.41	3.48±0.79 ^{ab}	3.46±0.57	3.36±0.44 ^b
	college of Convergence Science & Technology	22	3.26±0.55 ^a	3.59±0.77	3.22±0.92 ^a	3.21±0.56	3.04±0.58 ^a
	F-value		3.985**	0.839	3.206*	2.016	3.445*
Counseling course-taking	Taken	142	3.58±0.39	3.74±0.57	3.64±0.62	3.63±0.69	3.35±0.66
	Not taken	171	3.47±0.44	3.66±0.61	3.58±0.77	3.42±0.62	3.25±0.56
	t-value		2.395*	1.198	0.715	2.846*	1.391

* $p<.05$, ** $p<.01$, *** $p<.001$, Post hoc a<b

Table 2. Differ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Emotional intelligence	Self emotion appraisal	Other's emotion appraisal	Use of emotion	Regulation of emotion
Gender	Male	92	3.56±0.51	3.86±0.61	3.72±0.70	3.25±0.77	3.47±0.79
	Female	221	3.63±0.54	3.74±0.82	3.85±0.70	3.46±0.83	3.51±0.81
	t-value		-1.145	1.501	-1.495	-2.052*	-0.413
Major	college of Social Science	205	3.62±0.51	3.85±0.76	3.81±0.70	3.43±0.82	3.47±0.83
	college of Global Business	39	3.65±0.55	3.54±0.85	3.93±0.64	3.46±0.72	3.66±0.81
	college of Bio natural Science	41	3.54±0.49	3.74±0.63	3.74±0.66	3.30±0.73	3.42±0.65
	college of Convergence Science & Technology	22	3.59±0.60	3.77±0.68	3.74±0.86	3.23±0.81	3.66±0.78
	F-value		0.407	1.895	0.571	0.728	1.070
Counseling course-taking	Taken	142	3.68±0.55	3.87±0.76	3.85±0.70	3.52±0.86	3.51±0.86
	Not taken	171	3.56±0.51	3.70±0.76	3.78±0.70	3.30±0.76	3.49±0.76
	t-value		1.991*	1.969*	0.826	2.478*	0.295

* $p<.05$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52, p<.05$). 여자가 남자보다 감성활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상담 관련 강의 수강 여부에 따라서는 감성지능($t=1.991, p<.05$)에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요인 중 자기감성이해($t=1.969, p<.05$), 감성활용($t=2.478, p<.05$)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교육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은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의 차이가 일반적 특성과 상담수강경험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 전공, 상담수강 경험여부에 따라 공감능력에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공감능력의 하위요인 중 관점 취하기는 어떤 변수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Rogers[27]에 따르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공감하는 것이 중요한데, 상담 관련 강의 수강 여부에 따라서 관점 취하기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현재 상담 교육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상담 관련 강의 내용이 과거와 크게 바뀌지 않아 현대인의 사고방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여 커리큘럼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성별에 따라서는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공감에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공감능력의 관계를 탐구한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와 일치되는 것으로 보인다[28][29][30][31][32][33]. 다만, 직종에 따라서는 공감능력에서 다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34].

전공에 따라서는 공감능력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사회과학대학이 과학기술융합대학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학생과 인문학 전공학생의 공감능력이 남학생과 이공계 학생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것이다[35][36]. 그러나 연령대를 낮춰 고등학생의 공감능력을 측정하는 연구에서는 인문계 학생과 이공계 학생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라 할 수 있겠다[37]. 이는 전공에 따른 공감능력의 차이에 개입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상담수강 경험이 있는 경우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을 통해 정서적 공감, 그 중에서도 공감적 관심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교육과 양육 방식에 따라 자녀의 공감능력이 향상되거나 [38], 공감교육 또는 공감훈련 등의 교육프로그램[39] 등의 효과로 나타나듯 공감능력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전공과 기타 전공 사이의 공감능력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인 지적 공감을 교육하는 데에는 현재의 사회과학전공과목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상담에 있어서 공감능력은 상담 개입에도 상담자의 전문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27] 공감능력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공감능력이란 상담이나 심리치료 분야에서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전반적 분야에서 집중해서 연구되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40]. 따라서 차별화된 공감능력향상 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대학생의 성별, 전공, 상담수강경험여부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는 상담수강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상담수강 경험이 있는 학생의 감성지능이,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기감성이해와 감성활용이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감성활용이 높게 나타난 것에는 감성활용이 자기효능감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학점이 높은 현상과 결부시킬 수 있다.

전공에 따라서는 감성지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회과학대학 학생의 주전공이 사회복지학으로, 상담 관련 필수과목이 존재함에도 전공 간 감성지능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현재의 커리큘럼을 통해서는 감성지능을 함양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상담관련 교육 수강 여부에 따라 타인감성이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 또한 현 상담관련 교육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Rogers[27]가 상담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강조한 “다른 사람의 태도로 사는” 능력이 상담관련 교육을 통해 함양되지 않았다는 결과는 공감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대학생들의 이타주의점수가 유의하게 높아진 선행연구[41]에 비추어 볼 때, 전공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위의 결과와 결부하여 커리큘럼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경영학에서는 감성지능을 인적자원 개발영역으로 연구하면서 정직성, 강점·약점 지식, 사기 진작, 탄성력, 인내심, 대인관계와 같은 인간의 기본 능력인 것을 검증하였으며[42][43], 교육을 통해 감성지능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감능력 또한 감성지능과 연관되어 있

으므로, 적절한 교육 방법을 찾는다면 공감능력과 감성지능 양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론 중심의 현 커리큘럼에 대한 한계가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났으므로, 벽화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감성지능에 유의한 정의 영향($F=46.92, p<.001$)을 준 선행연구[44]에 기반하여 영화[45], 미술[46], 음악[47], 연극[48] 등 공감능력과 감성지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검증된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하고 검증해 볼 것을 제안해 본다.

시대에 따라 변화해가는 대학생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커리큘럼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커리큘럼에 사용한 매체에 따른 감성지능과 공감능력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 [1] Jang-Ho Lee, Introduction to Counseling Psychology, Seoul, PAKYOUNGSA, 1995
- [2] David Howe, Power of the empathy, Seoul, FOREST OF KNOWLEDGE, 2013
- [3] Sung-Hee Park, Sympathy, yesterday and today, Seoul, hakjisa, 2004
- [4] Davis, M. 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2-19, 1980
- [5] Rogers, C. R., A theory of therapy, personal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s developed in the client-centered framework, Vol. 3, pp.184-256, New York: McGraw-Hill, 1959
- [6] In-Kee Kim, Woo-Suk Oh, Myong-Hee Lee, Mi-Lee Kim, Sun-Mi Hamm, Personality Education, Paju, yswpub, 2017
- [7] Kurtz, R. R., & Grummon, D. L., "Different approaches to the measurement of therapist empathy and their relationship to therapy outcom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9(1), 106, 1972
DOI: <http://dx.doi.org/10.1037/h0033190>
- [8] Sachse, R., "Concrete interventions are crucial: The influence of the therapist's processing proposals on the client's intrapersonal exploration in client-centered therapy", Client-centered and experiential psychotherapy in the nineties, 295-308, 1990
- [9] Sung-Il Kim, "A Comparison of Empathy for Korean and Canadian University Students : A Preliminary Stud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Vol.6 No.2, 58-95, 1993
- [10] Jee-Young Lee, "The Effect of Ego States and Life Positions on Empathy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0 No.2, 113-122, 2012
- [11] Ga-Hee. Han, In-Hye Yi,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ic Ability and Interpersonal Problems Among University Students : The Moderation Effects of Smartphone Addiction",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21 No.4, 683-697, 2016
- [12] Eun-A Lee, "A Study on Empathy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 Students' Empathy Ability : With the Focus on the Ewha Womans University Course <Homo Empathicus: Communication, Empathy, Trust>",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3 No.5, 149-168, 2017
- [13] Shankar, P. R. & Piryani, R. M., "Changes in empathy among first year medical students before and after a medical humanities module", Education in Medicine Journal, 5(1), 35-42, 2013
DOI: <http://dx.doi.org/10.5959/eimi.v5i1.36>
- [14] Thorndike, E. L., "Intelligence and its uses", Harper's magazine, 1920
- [15] Seung-Hee. Lee, "(The)Effects of Multiple Intelligence Program Utilizing Play on Social Intelligence and Pro-social Behavior Development", Myungji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2
- [16] Eun-Joo Bae, "The Effect of Emotional Labor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Hotel Employees on Job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2
- [17] Eun-jung Oh, Myung-Ha Lee, Sung-Hee Ko,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pathy on the Facilitative Communication Ability of Psychiatric Nurses",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25(4), 284, 2016
- [18] Wong, C. S., & Law, K. S. (2002).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13(3), 243-274, 2002
DOI: <http://dx.doi.org/10.4324/9781315250601-10>
- [19] Goleman, D.,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Bantam, 1998
- [20] Eun-Soo Oh, Jung Ha, "The Effects of social worker'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sonality on Psychological Burn out",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 studies, Vol.29 No.1, 213-229, 2013
- [21] Mayer, J. D. and Salovey, P.,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edited by Salovey and Sluyter, New York: BasicBooks, 3-31, 1997
- [22] Salovey, P., & Mayer, J. D.,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1990
DOI: <http://dx.doi.org/10.2190/DUGG-P24E-52WK-6CDG>

- [23] Hyun-Won Jung, K. Nah, "A study on the meaning of sensibility and vocabulary system of sensibility evaluation". J Ergon Soc Korea, 26(3),17-25, 2007
- [24] A. Kaukiainen., et al.,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intelligence, empathy, and three types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25(2), 81-89, 1999
DOI: [http://dx.doi.org/10.1002/\(SICI\)1098-2337\(1999\)25:2%3C81::AID-ABI%3E3.0.CO:2-M](http://dx.doi.org/10.1002/(SICI)1098-2337(1999)25:2%3C81::AID-ABI%3E3.0.CO:2-M)
- [25] Sung-Hee Park, Empathy, Empathic understanding, Seoul, Wonmisa, 1994
- [26] You-Jung Jeon, Soo-Beom Lee, "The Effects of Employees' Personality Traits on Job Satisfaction and Burnout in the Deluxe Hotel",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Vol.26 No.3 , 2011
- [27] Rogers, C. R.,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95-103, 1957
DOI: <http://dx.doi.org/10.1037/h0045357>
- [28] Asakawa, K., & Schwalb, D. W., "Empathy and intimacy: An investigation of rural japanese children", In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oronto, 1985
- [29] Davis, M. H.,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Evidence for a multidimensional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1), 113, 1983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44.1.113>
- [30] Goldstein, A. P., & Michaels, G. Y., Empathy: Development, training, and consequences. Lawrence Erlbaum, 1985
- [31] Wise, P. H., & Cramer, S. H., "Correlates of empathy and cognitive style in early adolescence", Psychological Reports, 63, 179-192, 1988
DOI: <http://dx.doi.org/10.2466/pr0.1988.63.1.179>
- [32] Sung-Hee Park, Empathy and prosocial behavior, Seoul, Moonumsa, 1997
- [33] Jung-Joo Hong, "The study of empathy and aggression in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1988
- [34] Eun-Soo Lee, "The Effect of Hotel Salespersons' Emotional Intelligence on Sales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Using Gender Difference", Journal of Hotel & Resort, Vol.14 NO.2, 143-160, 2015
- [35] Baron-Cohen, S., & Wheelwright, S., "The empathy quotient: an investigation of adults with Asperger syndrome or high functioning autism, and normal sex difference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34(2), 163-175, 2004
DOI: <http://dx.doi.org/10.1023/B:JADD.0000022607.19833.00>
- [36] Focquaert, F., Steven, M. S., Wolford, G. L., Colden, A., & Gazzaniga, M. S., "Empathizing and systemizing cognitive traits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3), 619-625, 2007
DOI: <http://dx.doi.org/10.1016/j.paid.2007.01.004>
- [37] Eun-Kyung Shin, "A Relationship between Brain type of the Empathizing and Systemizing and Motivation to Learn Sc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2
- [38] Yong-Lin Moon. Professor Mun-Yong Lin's lecture on emotional intelligence, Seoul, Booksnut, 2011
- [39] Roman Krznaric. Empathy Handbook of Revolution, Paperback, 2014
- [40] Eun-Ha Kim, "Research on empathy in Counseling: A review of studies published in counseling journal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4 No.5, 2851-2867, 2013
- [41] Ja-Gyoung Koo, "The Effects of an Empathy Education Program Using a Liberal-Arts Course on Communication, Interpersonal and Perceived Therapeutic Facto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7 No.1, 11-26, 2006
- [42] Cherniss, C., & Adler, M., Promoting emotional intelligence in organizations: Make training in emotional intelligence effective.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2000
- [43] Se-Kyung Oh,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atisfaction : Focused on mediate effect of Self 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17
- [44] Ga-Ram Kim,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using Wall Painting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chool Adaptation of Maladjusted Adolescents in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7
- [45] Da-Hae Kang, "(The)effect of group counseling for school adaptive ability improvement using cinema on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chool adaption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school mal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2
- [46] Hee-Sook Lee,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program using 'Eum parent education on parents' emotional empathetic capacity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2
- [47] Ju-Young Lim, "Music Program development for the improvement of empathy in 5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4
- [48] Bo-Kyeong Ko, "Development of Service Education Program for Empathy Ability Improvement Using

Educational Theatre -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Corporate-Education -,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2019

임 애 련(Ae-Ryon Lim)

[정회원]



- 2002년 8월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학박사)
- 2018년 4월 ~ 2019년 2월 : 신한대학교 특임교수

- 2019년 3월 ~ 현재 :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조교수

<관심분야>

발달심리, 예술심리